

“원주시 전체를 활력 넘치는 체육도시로”

“원주시 전체를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체육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를 이끄는 원강수(53) 시장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이를 위해 방점을 찍은 정책 중의 하나가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다.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 관련 행사를 유치해 ‘진정한 체육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구상이다.

“110억 투입 30여개 노후시설 개선 659억 들여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 창단도 추진 전국대회 유치해 경제 활성화 앞장”

올해 체육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는 데.

“환경체육단지, 혁신체육공원과 같은 노후된 체육시설 6개소에 인조잔디와 충전재를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테니스장, 흥양천변 체육시설에 마구조를 설치하는 등 총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원주시 전역에 있는 전체 30여개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체육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 창단’이 눈에 띄었다.

“현재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 창단을 위해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장애인 태권도 전용 훈련구장과 선수 확보 등 본격적으로 창단 후속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될 것 같다.

“팀 창단을 통해 장애인들이 도전, 용기, 희망의 꿈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장애인 엘리트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건립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비 90억 원, 도비 140억 원, 시비 429억 원 등 총 659억 원을 투입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권역에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동부 혁신도시에는 25m 길이의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스쿼시장과 다목적체육관이 들



원강수 원주시장은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해 ‘진정한 체육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원주시

어선다. 서부 기업도시·남부 무실동에도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북부 캠프동 문화체육공원 내에는 50m 공인수영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체육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단일 국민체육센터가 아닌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한 지역 친화적 공간의 복합체육센터로 조성된다.”

-원주를 체육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주를 체육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체육시설 접근의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민의 건강은 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자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시 전체를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한편 민선 8기 동안 시민들의 전체 건강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설 확충 외에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충된 체육 인프라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원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종목별 전국 규모의 체육 대회를 더욱 활발하게 개최하고자 한다. 대회를 통해 선수단, 관람객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원주에서 식사, 숙박 등 각종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원시장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원주시가 경제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기업 유치,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원주시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주시의 ‘경제 전성기’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다.

“원주시는 건강한 체육도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경제 전성기 시대를 열어가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의 우량

원강수 시장

▲1970년 생 ▲원주대성고-강원대-강원대 법학대학원 ▲YBN영서방송 보도팀장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주시정연구원 원장 ▲원주시민공감연대 대표 ▲원주시장(2022.7.1~현재)

기업 유치 활동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소위 말하는 ‘취업한계선’을 원주로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시적 이차보전율을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최대 6%까지 상향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도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민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원주시는 체육 도시이자 경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36만 명 시민 한 분 한 분이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한 취미 활동을 통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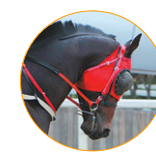
원주 | 유원성 기자 local@donga.com

3월의 마지막 경주, 1600m 1등급 우승마는?

26일 렛츠런파크서울에서 3월의 마지막 경주로 1등급 경주마들이 1600m 레이스에 나선다. 총 1억10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경주에는 다양한 연령의 경주마들이 출전한다. 1400m 위주로 뛰고 있는 많은 중거리 강자들이 새롭게 1600m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성적이 좋았던 출전마 5두를 살펴본다.

장산레이저 유력한 우승 후보 빅스고·흥록대부 견제 세력

●장산레이저(수, 한국 5세, 레이팅113, 승률 41.2%, 복승률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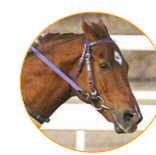
출전마 중 레이팅, 최근 수득상금, 승률, 혈통 등이 모두 뛰어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대상경주 출전도 2회나 했다. 이번에 1600m 전적이 있는 경주마들이 별로 없는데, 장산레이저는 작년 7월 1600m에서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춰 우승했다. 중거리 중 가장 많이 출전한 1400m에서는 7전4승이다.

●빅스고(수, 한국, 4세, 레이팅84, 승률 46.2%, 복승률 61.5%)



마사회의 경주마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K-Nicks)을 통해 선발한 빅스의 첫 자마다. 1600m는 지난해 12월 2등급 경주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다. 당시 기록이 이번 출전마 중에는 2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한 달 전 처음 도전한 1800m에서 우승해 1등급으로 승급했다. 최근 1년 승률만 보면 출전마 중 가장 높은 44.4%를 기록하고 있다.

●흥록대부(거, 미국, 5세, 레이팅91, 승률 28.6%, 복승률 42.9%)



지난해 11월에 1등급으로 승급한 이후, 올해 들어 연속 1800m 1등급 경주에 나서고 있다. 체구가 큰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막판 뒤집기보다는 초반에 선두권을 잡아 선행이나 선입으로 승부를 보는 편이다. 지난해 10월 딱 한 번 도전한 1600m에서는 4위에 그쳤다. 그래도 출전하는 경주마다 대부분 순위권에 들어올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소울메리트(수, 미국, 6세, 레이팅105, 승률 37.5%, 복승률 56.3%)



530kg 전후의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는 수말로 혈통이 화려하다. 부모는 미국의 연도대표마 아메리칸패로아이, 모마 플라센티아 역시 A.P.인디의 피를 이어받았다. 5세 중반까지 주로 단, 중거리에서 활약해왔는데 작년 4월 1등급으로 승급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주 거리를 늘려 1800m에 집중 출전하면서 지구력도 키웠다. 아직 1600m 출전 이력은 없다.

●레전드데이(수, 미국, 5세, 레이팅105, 승률 47.4%, 복승률 63.2%)



세계에서 가장 비싼 씨수말 중 하나인 태핏의 손자마다. 출전마 중 통산 승률이 47.4%로 가장 높으며 연승률도 73.7%로 높은 편이다. 1400m에 19번 중 13번이나 출전했다. 1400m 기록도 빠른 편이다. 2월 출전한 1400m 1등급 경주는 폭발적 뒷심으로 코차 역전승했다.

마사회-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MOU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와 22일 한국마사회 소유지사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사회 소유 7개 지사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ESG 등 기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한국마사회 지사지원처는 전국 27개 지사(장외발매소)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마

57세 ‘경마대통령’ 박태종, 통산 2200승...전설은 계속된다

지난 19일 슈어원과 역전극 완성 “최초라는 수식어 항상 부담되지만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질주”



박태종 기수

한국경마의 살아있는 전설, 박태종 기수가 19일 개인 통산 2200승을 달성했다. 올해 데뷔 38년 차로 ‘경마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박태종 기수는 한국경마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올리고 있다. 5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올해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다승 기록을 매년 경신하며 경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박태종 기수는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10경주에 경주마 슈어원과 함께 출전했다. 초반부터 선두를 바짝 추격하며 2, 3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했다. 마지막 코너에서 박차를 가하며 탄력적인 결승으로 선두로 치고 나온 슈어원은 그대로 거리를

넓히며 가장 먼저 결승선에 닿으면서 박태종 기수의 통산 2200승 대기록이 세워졌다. 결승 통과 직후 렛츠런파크서울에 모인 경마 팬들은 갈채로 박태종 기수의 2200승을 축하했고 경마 관계자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대기록을 축하했다. 기록 달성의 부담감 때문인지 6주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박태종 기수도 한결 편한 표정으로 말에서 내렸다.

박태종 기수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늘 기록 달성을 목전에 두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 해도 주위의 기대를 의식해서인지 경주가 잘 풀리지 않는다”며 “최초라는 수식어는 항상 부담되지만,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경주에 임하며 이겨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키 150m에 몸무게 47kg. 작지만 다부진 체격인 박태종 기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글삭기 기사 조수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용달차를 타고 배달을 하기도 했다. 친척의 권유로 기수후보생에 도전한 박 기수는 재수 끝에 1986년 정규 13기 기수후보생으로 합격했다. 이듬해인 1987년 4월에 독점경마장에서 기수로 데뷔했다. 데뷔 4년 차인 1991년에 48승으로 최다승을 기록하고, 최우수 기수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서운 아이’라 불리던 박 기수는 1992년 무궁화배 우승을 시작으로 대상경주 우승을 휩쓸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대망의 그랑프리까지 품에 안았다.

박태종 기수는 ‘기록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1996년 최초의 시즌 100승 기수, 최초 역대 연봉 기수 등 그가 처음 세운 기록은 엄청난.

2000년에는 데뷔 14년 만에 김명국 기수가 수립한 722승 역대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09년 1500승, 2016년에는 2000승을 기록하며 통산 승수를 쌓아갔다. 그동안 대상경주 48회 우승, 다섯 번의 최우수 기수 선정 등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활약을 보인 그에게는 이제 ‘경마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런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올해 57세인 박태종 기수는 현역 기수 중 두 번째로 고령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승률을 선보이는 백전노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전 2500승도 가능해 보였지만 은퇴를 몇 년 남기지 않은 요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렇지만 성적이 좋든 나쁘든 늘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생각하며 실망시키지 않는 기수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매 경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